

주니어보드

포유기



CHAPTER 1

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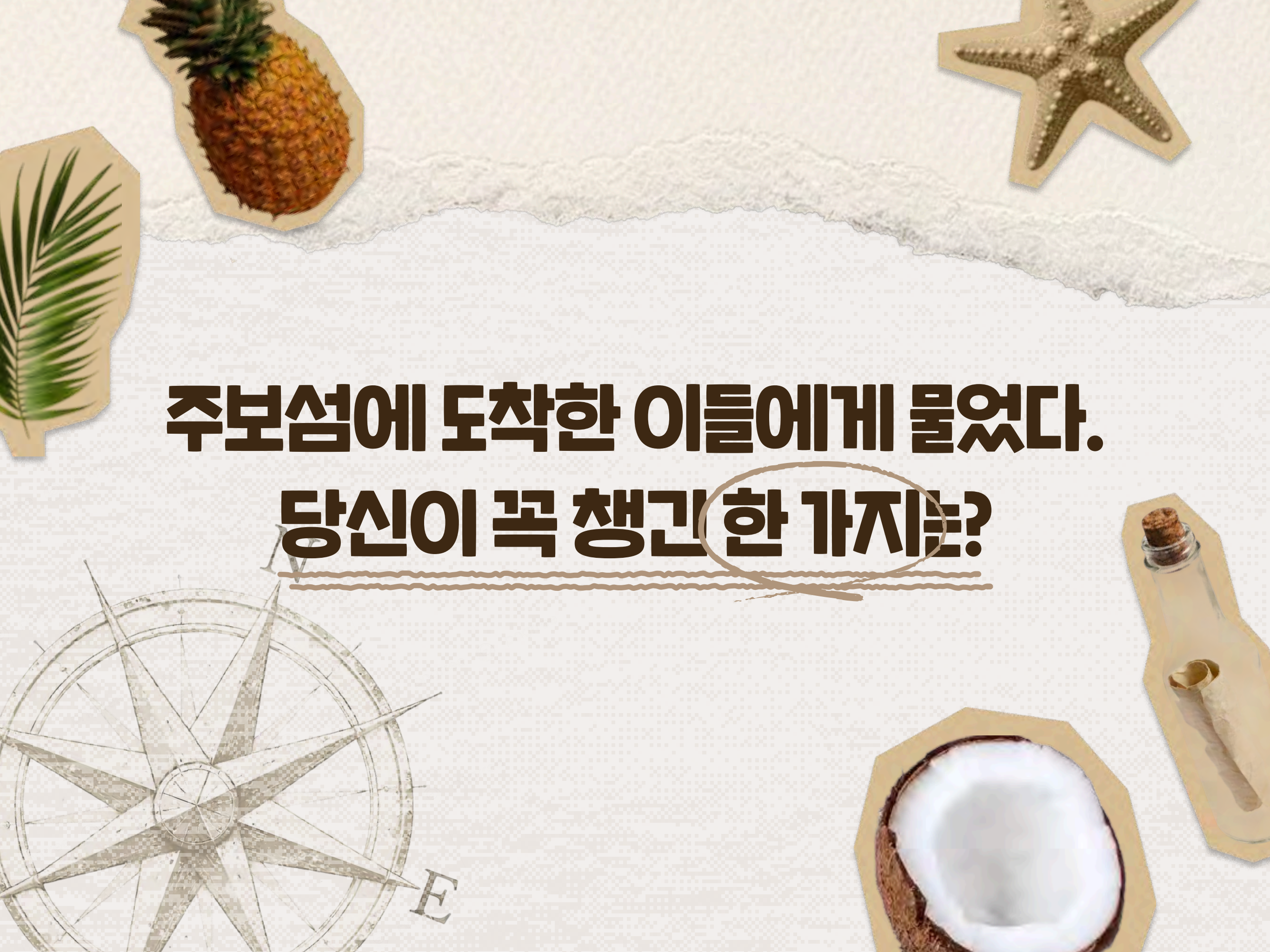


눈을 떠보니.. **주보섬 도착**

세상만사 관심많은 대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섬이 있다.

일년에 딱 열 다섯, 오직 그들만이 발을 들일 수 있다는 '주보섬'.

2026년, 높은 산을 넘고 광활한 바다를 건너 이 섬에 발딛은 열 다섯이 있었는데...



주보섬에 도착한 이들에게 물었다.
당신이 꼭 챙긴 한 가지는?

기획의 물건

이한승 AE

애착 반팔티

주니어보드의 스티브 잡스가 되는 그날까지...👕

송채영 AE

필기력

김주보... 너라는 활동의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을게...☆

임지윤 AE

도라에몽 주머니

주보가 뭘 필요로 할지 몰라서 일단 다 챙겨왔어... 악세서리 주렁주렁은 물론, 온갖 물건을 다 들고 다니는 맥시멀리스트 보부상👛

김수영 AE

뽀글머리

36기의 촉감놀이를 책임지는 나의 히피뽀머리👩

남다현 AE

단발

잘 자란 버섯같은 막내의 매력 어필을 위해🍄

임소희 AE

카페 갈 돈

저녁만 먹긴 아쉬우니 가슴속에 언제나 '카페인 예산'을 품고 다녀야해..☕

카피의 물건

박서영 CW

5G 데이터

카톡 답장은 1~2분 내로!
빠른 답장은 제 자존심입니다.. 🍷

백지원 CW

블랙홀

오늘 자기 전에 생각 많이 날거야...🌀
끌어당기는 반전 매력에 빠져볼래?

오현지 CW

아이유
응원봉

아이유❤️나❤️주보
아이유를 빼면 날 설명할 수 없지 ✨

고수연 CW

숫자 5

K-둘째, 내 나이 $5 \times 5 = 25$ 살
균형을 잡아주는 숫자 5가 좋아 🍷

정윤하 CW

개그력

타고난 유머감각의 그녀,
앞사람이 웃어야 마음이 놓여요 🍷



아트의 물건

박혜리 AD

확성기

흠어지면 안된다.
다 함께 모이는 것만이 친해지는..
아니 생존의 길~ 다들 뭉쳐!!! 📢📢📢

이승리 AD

밥심

주보 끝나고 뭐 먹을지 미리 고민해서
저녁 메뉴를 빠르게 선점한다! 🍲

이정환 AD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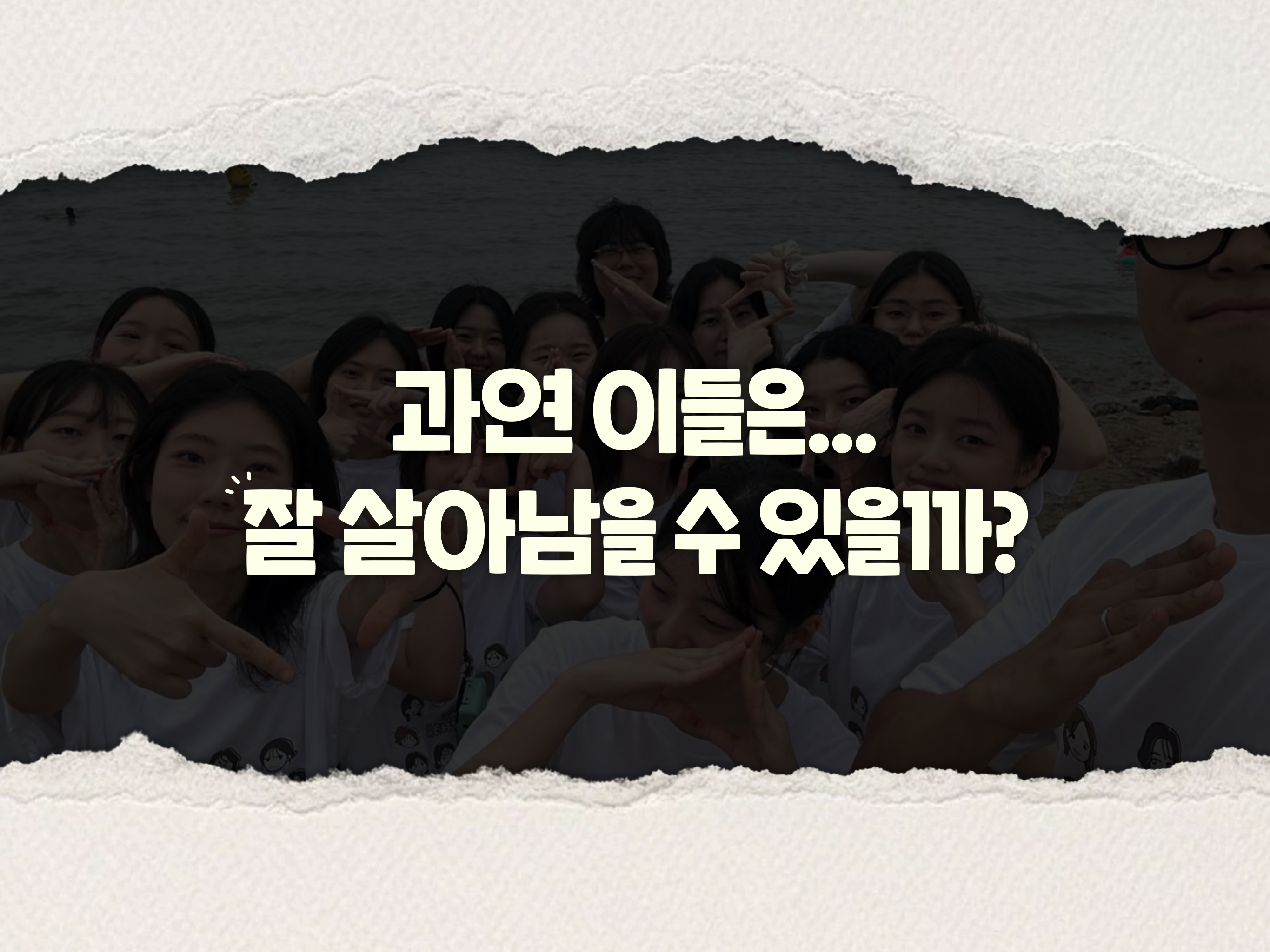
흰 차와 바람만 있으면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시켜줘, 후보 명예운전사 🚗

이다현 AD

서핑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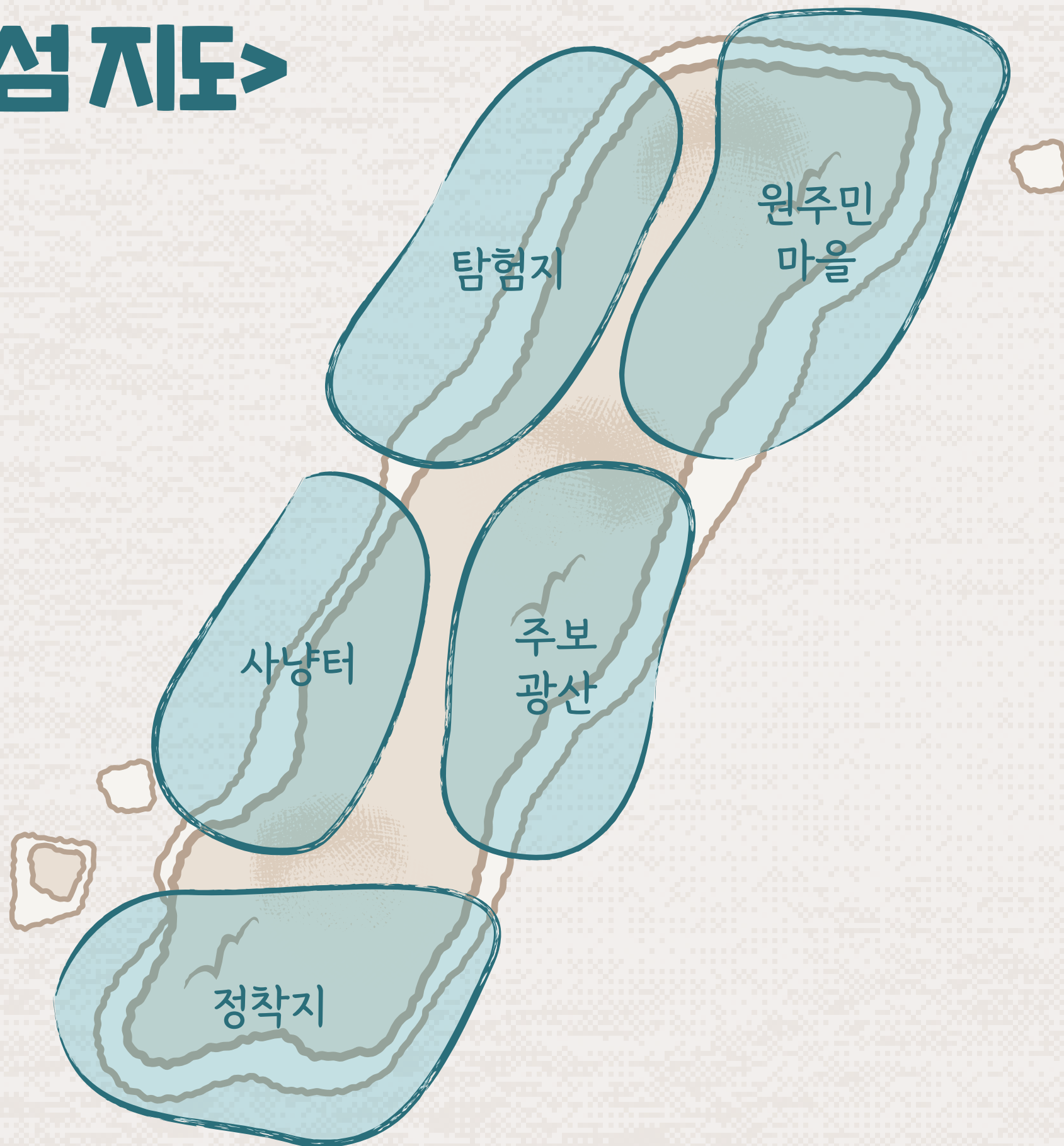
주보 친구들의 콘텐츠 파도를
자유롭게 타고 다녀야겠어! 🏄



A group of young people, mostly women, are posing for a photo on a beach. They are wearing white t-shirts and making various hand gestures, some pointing towards the camera. The background shows the ocean and a dark, silhouetted coastline under a bright sky. The entire image is framed by a white, torn-paper-like border.

**과연 이들은...
!!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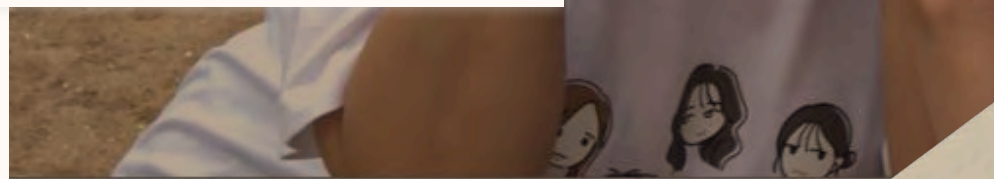
<주보섬 지도>



CHAPTER 2

생존





MISSION ①

**주보섬의 원주민들을 만나
생존 노하우를 습득하라!**



살아남은 이들에게 전수받다

<원주민 마을>



최소 6년부터 25년까지,
주보섬 원주민들의 이야기.
피가 되고 살이 될지어다!

김형민 멘토님

<선택에 도움이 될 Q&A>

“ 내 사전엔
답변 불가능한 말은 없다 ”

주보섬에 반년 간 머물며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기술 등을 배우길 바란다.
광고 대륙에 발을 들이기 전, 그때 나는 궁금한 건 많았지만 정보가 없었다.
그러니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내게 물어봐라.
10년 이상 동안 살아남은 노하우를 전수해주마!



박수현 멘토님

<온에어의 나날들>



"나 자르면"

노란 피 나와 ㅎㅎ"

광고인은 크리에이티브와 브랜드와 타깃을 연결하는 초월 번역 전문가와 같아.
그 초월 번역 감각을 익히기까지, 후보섬에 이어 드바 인턴, 공채까지의 과정이 있었어.
그 과정에서 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고마운 도구는 '기록'이야.
너희도 그런 도구를 하나씩 잘 찾아 후보섬에서 더 잘 살아남기를!



박지우 멘토님

<카피라이터의 일>



“주보섬에서
호밀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카피라이터는 자고로 카피로 광고주의 믿음을, 소비자의 마음을 사야해.
카피라이터로 잘 살아남고 싶다면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에 굴복하기 보다는 일과 상생할 수 있는 +1을 만들기를 바라.



김백수 멘토님

<인문학, 비즈니스 세계에 왜 필요할까>

“우리, 긴 대화를 시작합니다”

국문학과 단일 전공이었던 나는 '전달자의 기쁨'을 만나고 광고에 빠졌어.
너희도 그래서 주보섬에 온 거지?

광고는 우리네 일상과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인 인문학이 본질인 영역이지.

설득 커뮤니케이터로서 광고 대륙에서 살아가기 위해
인문학(인본주의)이란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란다!



김민재 멘토님

<생활포지셔닝 vol.1 & 2>



“살아남고 싶어?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해서 생각해봐”

잭 트라우트의 <포지셔닝> 읽어봤지? (안 읽어봤다면 꼭 읽어보렴)
광고에서 포지셔닝은 모든 브랜드의 출발지점이지.
주보섬이건 광고대륙이건 어느 영역에서도 적용돼.
너라는 브랜드의 출발지점, 포지셔닝을 잘 활용해야 할거야!



주보섬에 함께 사는 사람들

서민석 멘토님

고민이 있으면 텃밭으로 찾아오렴,
잘 지켜보고 있을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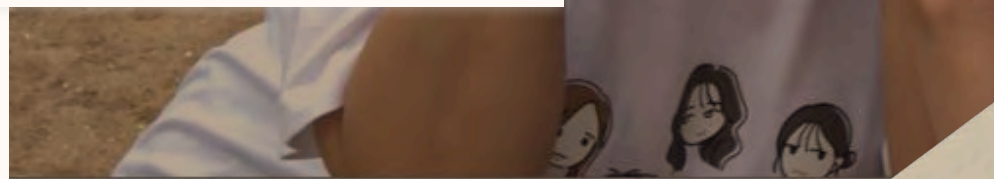
홍세진 멘토님

너희들 눈이 참 반짝이구나
앞으로 잘 부탁해

이예나 차장님

애들아 다들 잘 왔지?
오늘도 강의 잘 들어~





MISSION ②

**주보섬의 모든 지역에서
주어진 퀘스트를 완수하라!**



살아갈 터전이 되는 나의 한문장

<정착지>



당신의 삶에
뿌리내린 문장이 있는가?
지금, 나의 터전을 이룬
그 한 문장을 찾아라!

[유병욱 ECD님 -
'나를 차지하는 문장']

TIP.
나를 차지한 그림, 음악, 영화 등에서
한 문장을 찾아보자!

Q. 첫 과제였던 '나를 차지하는 한 문장', 첫 발표인만큼, 의미가 남달랐을 것 같은데?

지원 CW

한 문장 발표는 학기 초의 생일 파티 날 같았어요. 저는 지금 심는 매화나무가 초라해 보여도 내년에는 가지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광고와 카피라이터라는 꿈에 대한 기대감을 담은 문장을 골랐고, 친구들의 문장들이 이어지며 생일 선물을 하나씩 뜯는 것처럼 펼쳐졌어요.



헤리 AD

"나를 차지하는 한 문장" 과제는 주니어보드의 첫 발표였어요. 순수하게 내 생각만 담는 발표는 오랜만이라 방향을 못 잡았지만, 취향부터 찾아가며 어렵곤했던 것에 이름을 붙이니 문장의 경로와 이유를 찾았어요. 문장을 구축하니 동기들의 문장도 인생과 가치관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 CW

첫 발표라 좋은 문장을 모으다, 욕심을 버리니 자주 하는 말을 선정했어요. 문장은 '걷는 것'과 관련됐고, 큰 목표보다 순간에 집중하는 의미예요. 눈은 반짝, 고개는 끄덕여 목이 아팠어요.. (이런 내 맘을 주보는 알까 몰라..) 병욱 ECD님 피드백 덕에 기분 좋게 마무리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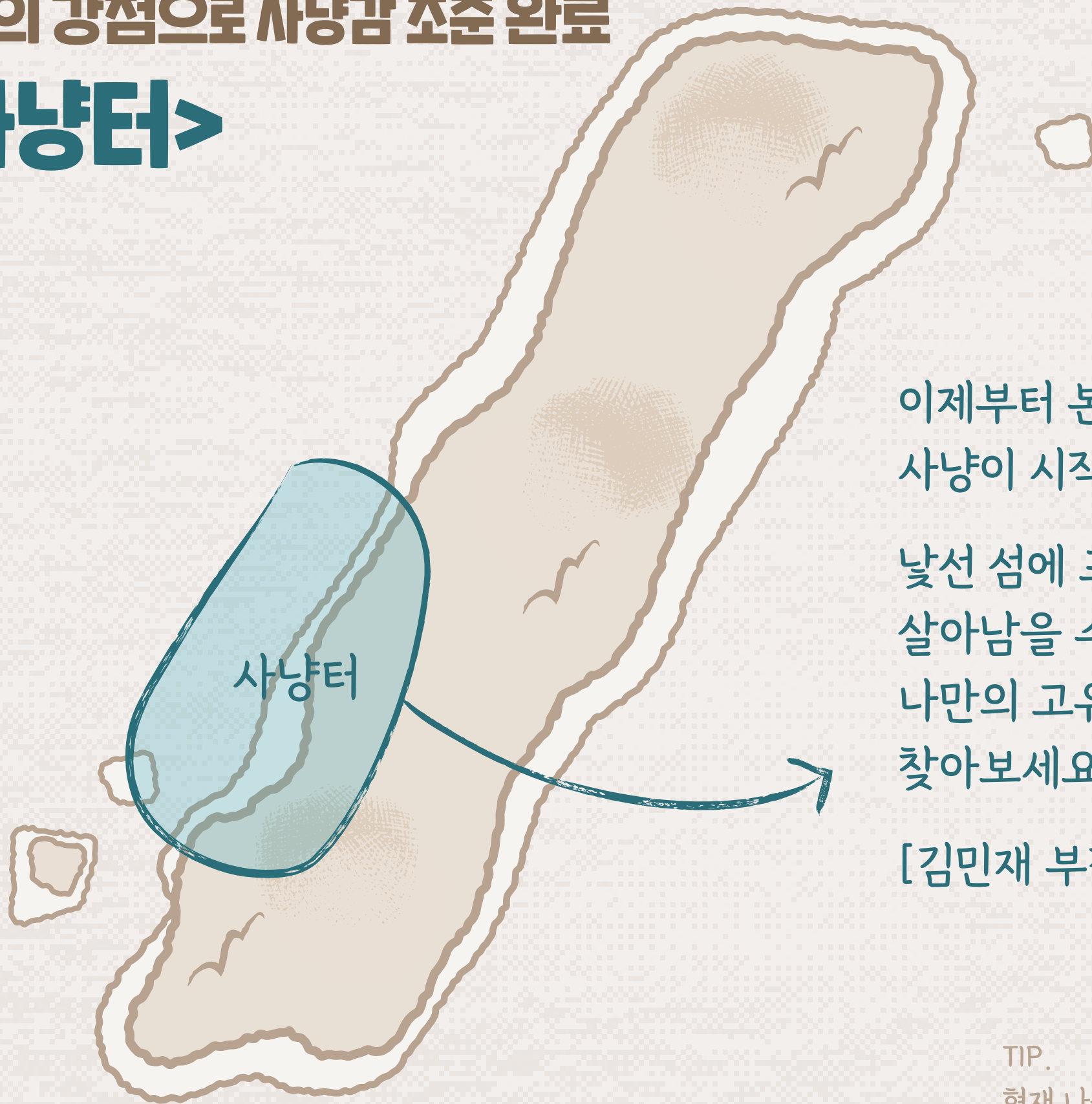
서영 CW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비트겐슈타인의 이 문장은 '카피라이터'라는 꿈이 희미해지지 않게 해줬고, 발표로 더 선명해졌습니다. 심리 실험도 소설도 철학도 형태만 달랐지 같은 곳을 향했습니다. 언어의 힘을 믿고 원동력 삼는 일, 가치관 정리한 기회였습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사냥감 조준 완료

<사냥터>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다!

낯선 섬에 표류된 우리,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무기(강점)를
찾아보세요.

[김민재 부장님-개인 포지셔닝]

TIP.

현재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에 따라
나의 무기도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Q. 개인 포지셔닝 과제하면서 같은 직무 친구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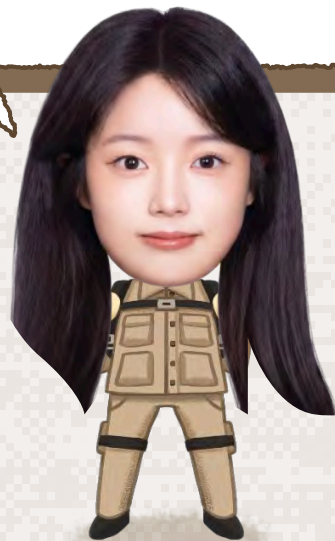
승리 AD

우리 아트 친구들은 한 명 한 명 정말 개성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개성은 작업물만 보고서는 알 수 없었고, 함께 저녁도 먹고 수다도 떨어보니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저는 개성적인 아트 친구들과 비교해보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소희 AE

서로 더 잘 알기 위해 자소서를 공유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장단점을 나눈 시간이 인상 깊었는데, 제 단점이라 생각한 부분을 다른 친구들은 장점으로 봐주더라고요. 사람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 세상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고, 후에 과제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네요.



다현 AE

활동 초반이라 자존감이 떨어져 있던 저에게는 참 무겁고 막막한 난이도 '상'의 과제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같은 AE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미처 몰랐던 제 무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매력까지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던, 참 감사하고 힘이 되는 과제였어요.



지윤 AE

과제를 위해 AE들과 함께 브런치 타임을 가졌어요. 같은 직군인데도 너무나 다른 관심사와 배경을 가지고 주보에서 만났다는 게 참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며 한 명 한 명을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저와 동료 AE들에 대한 해상도를 함께 높이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세상의 빈칸을 채우러 가는 중 <탐험지>



미지에는 언제나
첫 발자국이 필요하다.
빈칸의 그곳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 지금 즉시 탐험하라!

[김민재 부장님-지역 포지셔닝]

TIP.
그 누구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것 같은,
정말 미지의 곳을 찾아보자!

Q. 주보의 첫 팀플, 지역 포지셔닝. 다들 어땠나요?

다현 AD

저희는 충남 서천군 지역 포지셔닝을 진행했습니다. 경유지로 여겨지던 서천이 목적지가 되도록, 야광충을 찾아 떠나는 관광택시 '야광도주'를 기획했어요. 꼼꼼히 피드백해주신 민재 부장님께 감동했습니다. 답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통해 팀원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수영 AE

저희는 고창의 고인들을 활용해 '가장 오래된 락의 도시, 고창'을 기획했어요. 고창의 세계유산을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광고 경험이 거의 없었던 저에게 유독 기억에 남는 과제였습니다. 유능한 팀원들, 그리고 성심성의껏 피드백해주신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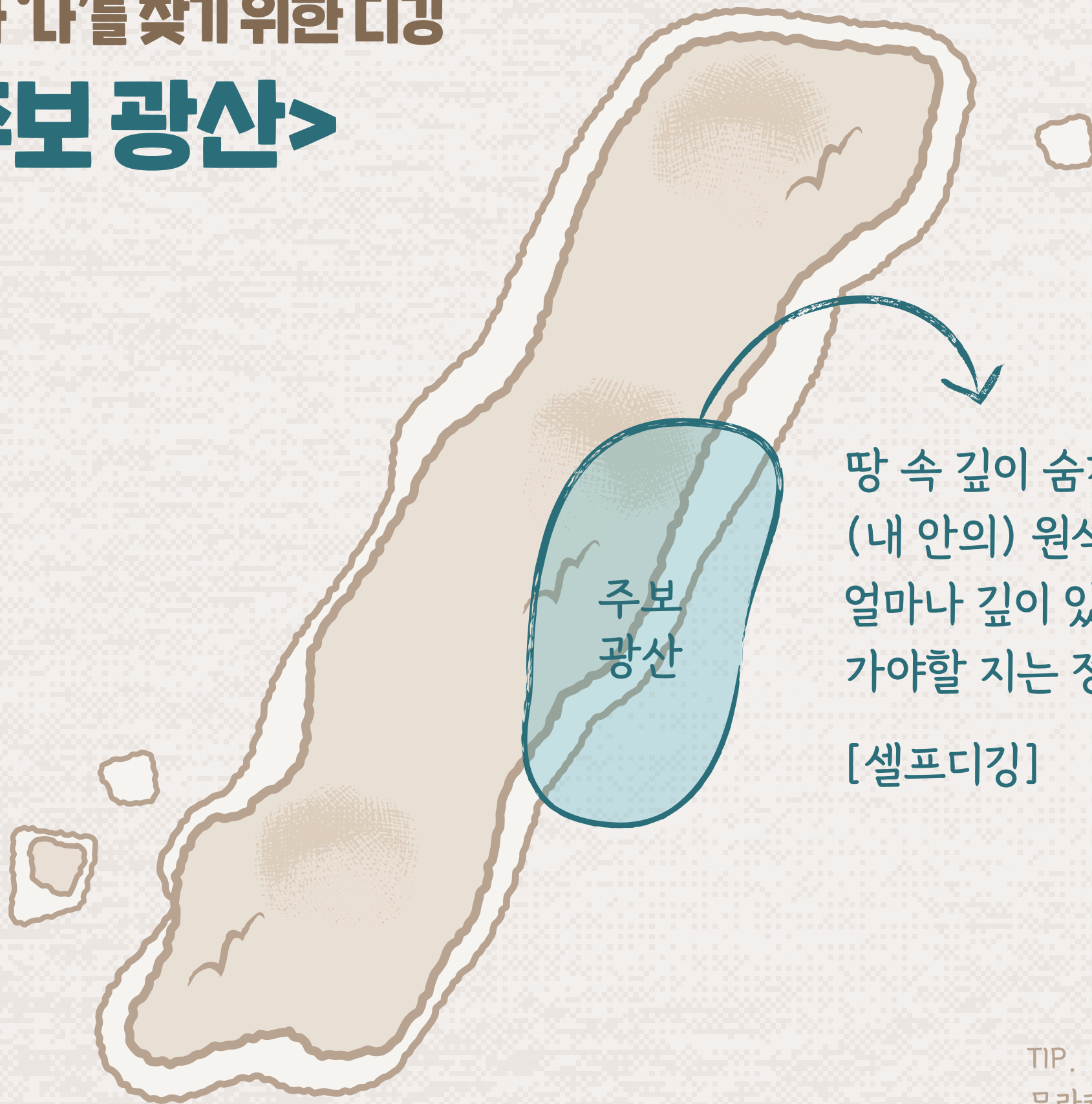
정환 AD

낮은 인지도의 '청도'를 포지셔닝 과제로 택했습니다. 팀원들과 직접 다녀왔는데, 씨없는 반시, 친절한 주민들, 고즈넉한 다로리마을 등 여유가 매력적인 지역이었어요. 여유 니즈를 풀어낸 '느슨해질지도'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저희만의 답을 찾는 과정이 즐거웠어요.



진짜 '나'를 찾기 위한 디깅

<주보 광산>



땅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원석을 디깅하라!
얼마나 깊이 있을지, 어떤 루트로
가야할 지는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셀프디깅]

TIP.
무라카미 하루키의 굴뚝김이론을
정독해보세요.

♀. 혼자였다면 힘들었을 셀프 디깅! 같이 도와준 멘토님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 같은데?

현지 CW

사실 '아이유' 빼고는 저를 설명할 게 없었고 덕질이 권태롭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멘토님의 피드백이 위로가 됐어요. '누군가를 오래 좋아하는 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몰랐던 '누군가를 살리는 글을 쓰고 싶다'는 마음을 깨닫게 됐죠.



윤하 CW

자기소개하면 자신있었는데, 회의실에서 수현 대리님과 대화를 나누다 눈물이 터졌어요.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발표 중에는 미소를 지어주시고 발표가 끝난 뒤에는 "내가 너무 괴롭혔지?"라고 물어보셨던 게 기억에 남아요. 전혀요! 나의 오은영 박사님, 대리님 사랑합니다



한승 AE

스토리텔링을 업으로 삼고 싶으면서도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제를 통해 나를 진실되게 이야기할 방법을 고민했고, 제 특성을 언어화할 수 있던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김백수 멘토님의 멘토링 덕분에 주제를 훨씬 간결하게 다듬을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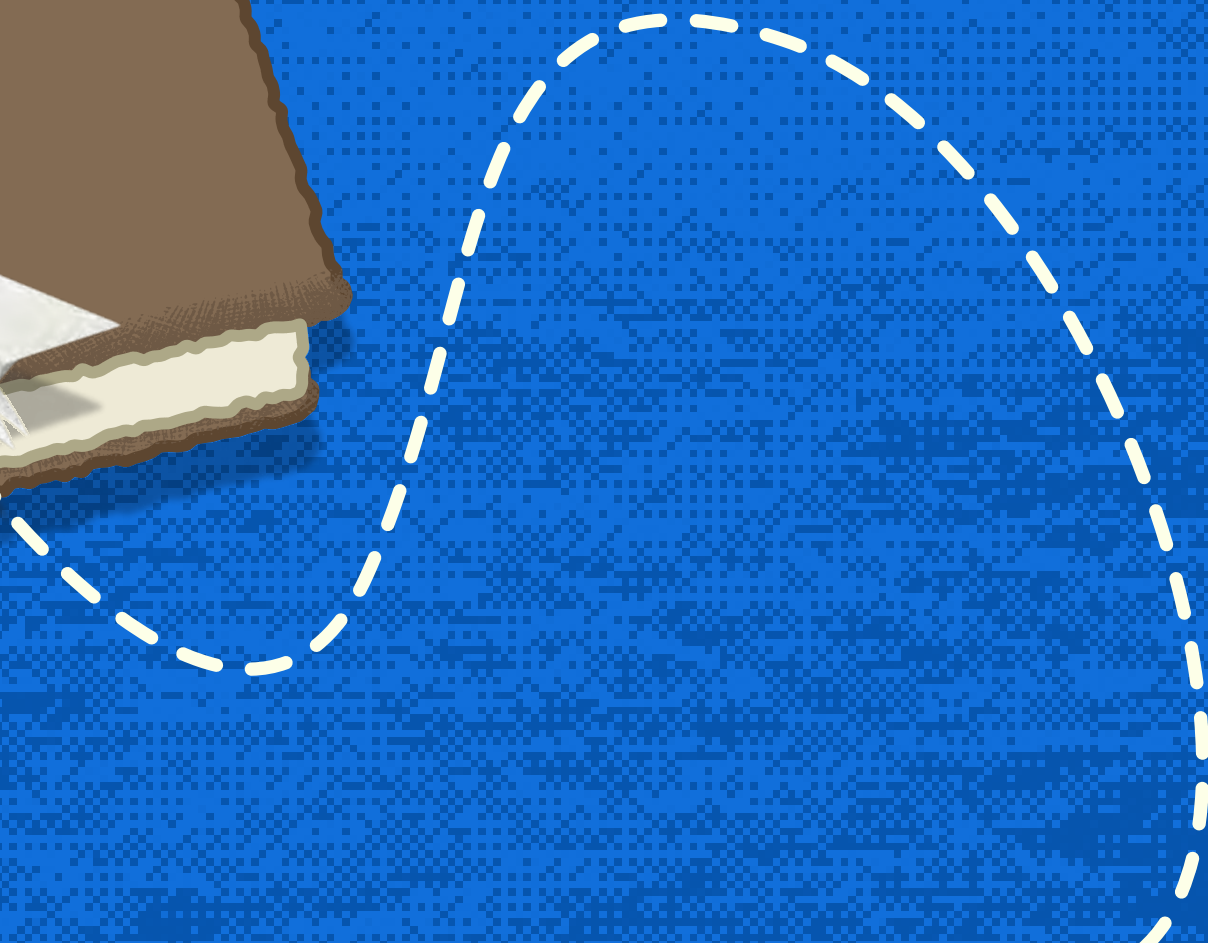
채영 AE

'나'를 파고들어야 하는 시간이었지만 소재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그런 저에게 백수 멘토님은 후보에 다시 지원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출발하라고 조언해주셨고, 덕분에 나를 더 선명히 조금씩 찾아갈 수 있었어요. '나로 살아볼 결심'을 이야기하며 떳떳한 내가 된 기분이 들었죠.



CHAPTER 3

발자취



**주보섬에서 살아남은 나날들,
그 발자취를 기록하다**

김백수 멘토님 소감

36기는 '주니어보드에 표류했다'고 하지만, 나야 말로, 멘토로서, 늘 기대던 주니어보드 진행의 나침반을 잃고 완전히 표류한 느낌이었다. 이제 망치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36기를 맞이해 함께 지내지? 어떻게 더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지? 매번 고민스러웠고, 특히 상반기는 그 혼란이 더 클 수 밖에... 멘토들과 함께 표류해, 표류를 함께 써 내려간 36기가 참 고맙다!

to. 멘티 채영

어쩌다 보니 지원 전부터 알고 있었던 채영이, 어찌어찌 이 곳, 주니어보드까지 무사히(?) 표류해 흘러 들어왔는데... 가장 기뻐던 건, 주니어보드에서 만나기 전엔 뭔가 흐릿하게 느껴졌던 채영이라는 사람의 '색채'가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고, 선명해졌다는 점이였다(색채가 없는 다자키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라는 소설 제목이 생각남 ㅎㅎ).

신비로운 보라색 같기도 하고, 패션에 관심 많은 채영이가 즐겨입는 블랙(+ 포인트 컬러 하나) 같기도 하고... 뭐라 딱 꼬집어 규정할 수는 없지만 채영이가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표류 끝에 도착한 주니어보드에서 만나, 멘토-멘티까지 되어, 비로소 알게 되었다. 몰랐으면 어쩔 뻔했어! 표류도, 일단 하고 볼 일이다. ^^



to. 멘티 한승

그래도 한승이의 멘토가 되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다 보니 36기 시작 시점에 갓 전역한 한승이가 중식(특히 짬뽕)을 좋아한다는 것, 운동도 열심히 해 심플한 무지 컬러 티셔츠를 교복처럼 입고 다닌다는 것, 영화를 좋아해, 언젠가는 (꼭 영화가 아니라도) 뭔가 자기 삶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 등... 그냥 회의실, 강의실에서만 만났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자잘한(ㅎㅎ) 이야기들을 알게 되었다. 아마 한승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별 도움은 안 되겠지?

하지만 그런 자잘한 이야기들을 쌓아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게, 사는 재미이자 주니어보드의 매력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여하튼 난 그 이야기들을 나눴던 시간이, 무척 즐거웠단다.



셀프디깅을 위한 딥토크
with 백수멘토님



김형민 멘토님 소감

Q&A 강의를 진행하며 주니어보드 친구들이 던져준 질문 덕분에 저 역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스스로도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을 건네준 후보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강의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별명을 지어주고 친근하게 불러준 기수는 처음이어서, 그것도 참 즐겁고 고마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to. 멘티 수영, 다현

수영이와 다현이가 제 멘티여서 참 좋았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두 사람 모두 참 좋은 사람이고,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제 멘티라니 저는 참 복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주니어보드 활동이 끝난 뒤에도 꼭 긴 인연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봅시다! ^^



김민재 멘토님 소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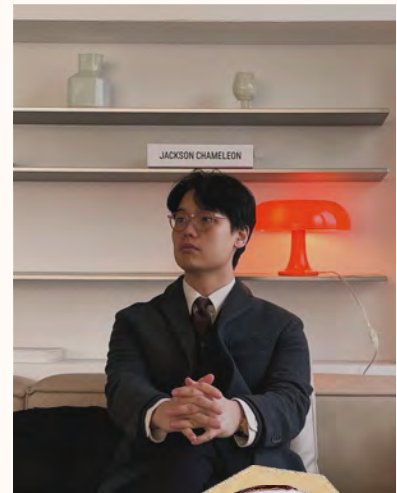
주니어보드는 제게 짜릿하고 늘 새로운 자극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재미있는 멘티들 덕분에 늑크크에서 살짝 벗어나 보기도 했네요(ㅋㅋ)

to. 멘티 소희, 지윤

소희와 지윤은 지원서, 필기, 면접의 과정에서 서로 대척점에 있다고 느꼈던 인물들이었는데요. 마침 그 둘이 제 멘티가 되어서 제 마음대로 실험하듯 멘토링을 해볼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모쪼록 저와의 멘토링 시간들이 서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시간들이었길 바랍니다.

2026년을 강타한 트렌드
영크크? 늑크크? 니 민크크 00



박지우 멘토님 소감

3개월이 이렇게 짧았나?

같이 하고 싶은 게 훨씬 많았는데, 반의 반도 못하고 끝나버렸네.
그 짧은 시간도 무지 알차게 소화해준 세 멘티들이 무지 대견하다.
멘티 둘 말고 셋 맡길 잘했다. 세 번 잘했다.

to. 멘티 현지, 수연, 서영

카부쓰는 사실 이것의 줄임말이었어

카 - 카피 현지 수연이 서영이가 멘티여서

부 - 부끄부끄 (좋은)

쓰 - 쓰담쓰담 (기특)



#카부쓰...영원하자



서민석 멘토님 소감

올해 망치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즐겁고 활발히 지내는 멘티들 모습에 역시나 훌륭한 친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잘 배워나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to. 멘티 정환, 지원

지원이의 반짝반짝 눈빛, 정환이의 열정적인 땀.

세 달이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선물로 준 티셔츠(골프, 농사를 그려서 프린트해준)는 목적에 맞게
골프 연습할 때와 농사 지을 때 잘 입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커플티 있는 멘토멘티...
사실 너무 부러웠어요...



홍세진 멘토님 소감

나의 3번째 주보 친구들 안녕! 늘 야무지고 반짝이는 너네들 보면서
다소 썩어버린 날 반성할 때가 많단다.(너네 너무 잘 났다는 말♥).
우리 남은 시간 더 가까워져보자고!
궁금한 거 있음 언제든지 많이 물어보고! 날 이용해!

to. 멘티 헤리, 다현

까르르 까르르 잘 웃어주는 귀엽고 똑똑한 멘티들! 짧지만 디깅과제를하면서
쾌속으로 알아갔던게 생각이 많이난다 ㅎㅎ
여리여리한 첫인상이었지만 대화해볼수록 앤 장군이구나! 라고 느낀 야무진
헤리. 척하면 척하는 독순이 모습에 감동이었어☆(일단 원피스 좋아한다에서
넌 참 좋은사람.현명한 사람!) 그리고 우리 짹짹공주 다현이 너가 주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정말 어딜가나 응원받고 사랑받을거야. 디깅과제하면서
기가막힐 정도로 유쾌하고 센스있는 너의 모습에 난 멘티복이 좋구나~라고
느꼈단다. 짧은 시간동안 나 믿고 달려준 것도 고맙고 많은 얘기 들려줘서
고마웠어. 커피나 마시자!



박수현 멘토님 소감

셀프 디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시간 동안 윤하와 승리가 멘티여서 다행이라
고 생각했다. 자신보다 남을 살피는 게 익숙한 윤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
는 기회를 얻게 돼서, 늘 이야기보따리가 두둑한 승리의 이야기 출처를 찾는
과정을 함께하게 돼서, 참 다행이었다.

to. 멘티 승리, 윤하

기꺼이 들려주고 따라와 준 영리한 승리, 다정한 윤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게 나의 상반기 소감 전부다.

분주카에서
분주멘토 멘토의 만남이라...



이예나 차장님 소감

36기와 함께하는 동안 모든 순간이 즐거웠지만,
 셀프디깅을 통해 한 명 한 명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서 더더더 좋았어!! ♡
 남은 시간 주니어보드에서 많은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면 좋겠어~~!!
 화이팅!!



언제나 밝고 따뜻하신
 예나 차장님!



멘토님들의 이야기로
 생존일지가 따뜻하게 채워졌네요.

주보섬에 표류해 생존해온
 15명의 발자취도 따라가볼까요?



멘티들의 소감

소희 AE

와, 벌써 3개월이 흘렀다고????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처음에는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마른 갈레를 짜는 것처럼 막막했는데,
과제를 하며 어거지로라도 저를 탐구하다 보니 저도 몰랐던 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상보다 훨씬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주보에 합격한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길...

다현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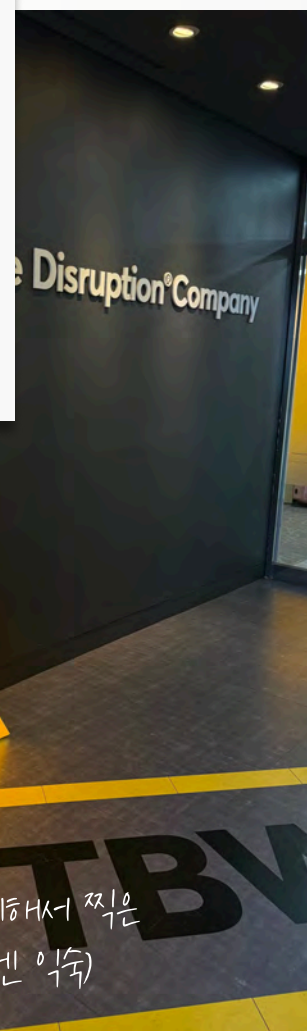
매 과제마다 제 과제보다 동기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기다려지고 궁금했어요.
언니, 오빠들의 발표를 들으며 "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표현
할 수도 있구나!" 하고 감탄하기 바빴고, 매 시간이 저에게는 최고의 자극이자
영감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즐기고 누리자'는 다짐처럼, 남은 시간도
끝까지 더 많이 즐기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승 AE

창의적인 광고들을 보며 광고기획자의 꿈을 갖게 되었고, 더 배우고 싶어
주니어보드에 지원했습니다. 다양한 강의와 과제를 통해 크리에이티브는
순간의 영감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된 인사이트와 문제 도출의 결과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같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남은 하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보 36기!



기회팀 AE가
첫 정모일 ~
(0-184 70-184 ~)



멘티들의 소감

채영 AE

그토록 간절했던 주니어보드에 합격했을 때, 기대가 정말 컸어요. 그런데 주니어보드는 기대보다 감동이 더 큰 곳이었습니다. 좋은 광고는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나만의 관점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결과물보다 그 관점을 만드는 사람, 즉 '나'를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고, 그렇게 쌓인 질문들과 고민들이 지금의 나를 조금씩 빚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14인의 주니어보드 친구들. 활동이 끝나는 날까지 이 순간들을 마음껏 즐겨보자!💛

수영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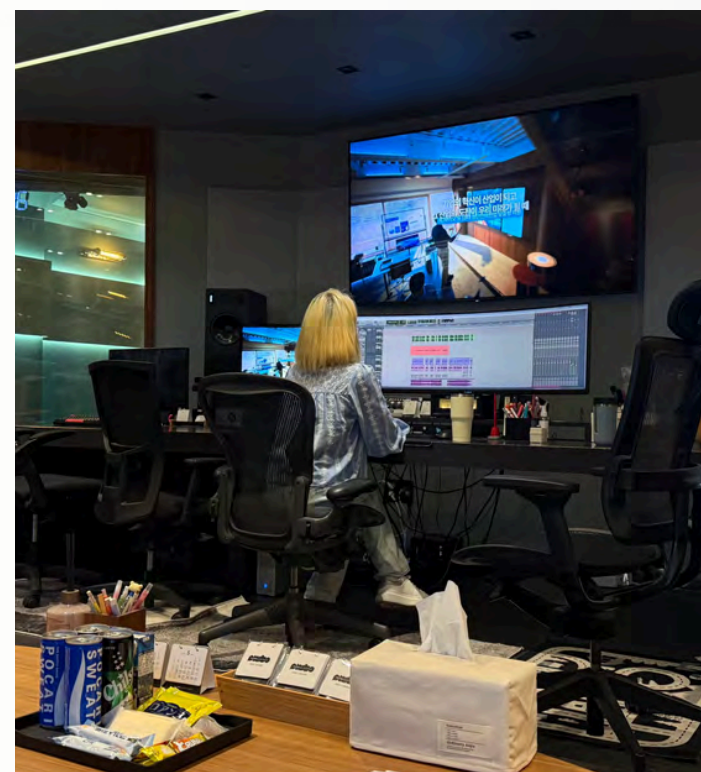
사실 광고에 관심이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 호기심에 가까운 마음으로 지원했는데, 후보하길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짝이는 눈으로 광고 얘기를 하시는 멘토님들을 보며 나도 나중에 저런 태도로 일을 대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고, 몇 달 전보다 광고를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36기 친구들 그리고 멘토님들(특히 최고의 멘토 형민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윤 AE

'좋은 생각'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하나의 주제를 두고 15명의 서로 다른 관점과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꼭 여러 편의 단편 소설을 펼쳐 보는 기분이었고, 덕분에 생각의 폭도 한층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부족해 보이기만 하던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용기까지 쑥쑥 자라나고 있습니다.



→ 셀프디깅 이후
너덜너덜해지고
피자먹방
(맛나맛나~)



현실에서
퍼펙션했던 내가
독음실에서선 아이유?

멘티들의 소감

윤하 CW

디스러션 회의실에서 보낸 72시간은, 로망을 이루느라 쉴 틈이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중에는 빈틈없는 프로이시지만 강의가 없는 날, 같이 밥을 먹을 땐 한없이 인간적인 멘토님들!

나이도 전공도 취향도 다르지만 언제든지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이쪽에서 쿡하면 저쪽에서 짹할 수 있는 주보 친구들! 소망해 온 경험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지 CW

광고를 하나도 모르던 내가 광고는 물론 세상과 나를 알아가는 시간까지 얻어갈 수 있어 정말 운 좋게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기대 이상의 능력자 친구들과 과제부터 수다까지 함께 나눈 시간도 소중하다. 무엇보다 주니어보드라는 프로그램 자체에 셀프 감동을 먹었다. 바쁘신 직장인분들일 텐데 굳이 시간을 내 강의해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이거 사이비 아니고서는 말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ㅋㅋ 하반기에는 멘토님들도 36기 친구들도 더, 깊숙하게 친해지고 싶다.

수연 CW

주보 처음 시작할 땐 설레기도 했지만,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근데 주보는 남들 사이에서 뽐내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돕고 배우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주보 친구들 정말 잘해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지우 씨디님과 보낸 시간들은 정말 행복했어요. 주보 하면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공간에 애정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가기 싫어요~~



지우 (D)님 ♥ 카피
맛밥 감사합니다! 아양



맛밥 잘 사주는 멋진
지우 (D)님...



멘티들의 소감

서영 C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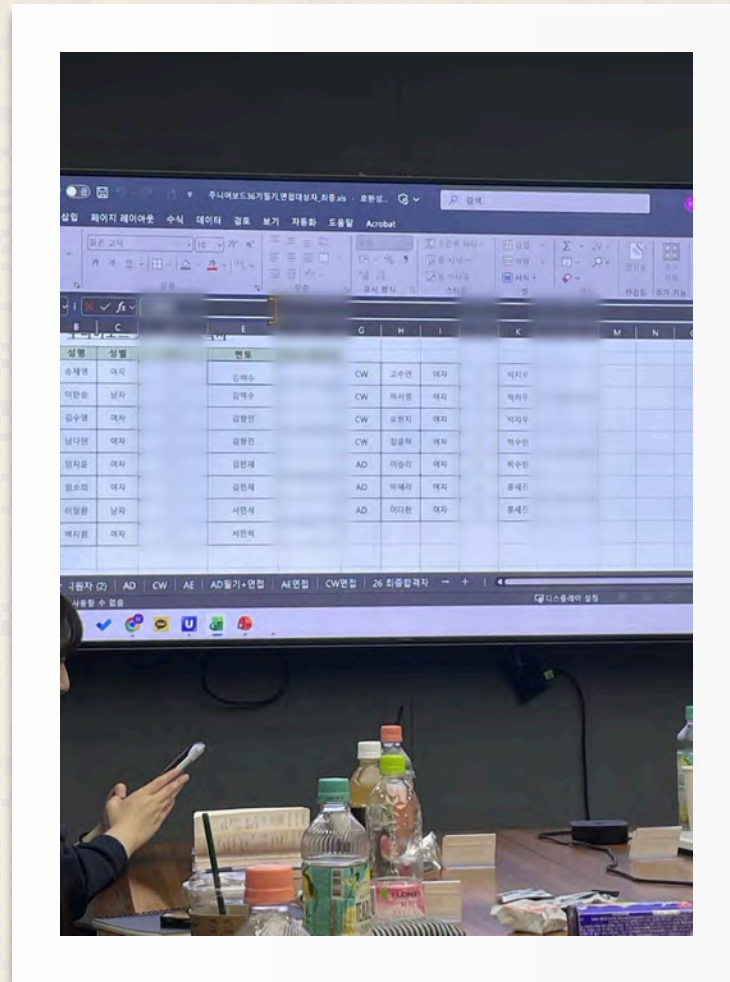
지난 3년 연말연초마다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니어보드 지원할까 말까. 같은 이유들을 손에 쥐고 '말까'에 정착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 저변에는 광고를 더 좋아해 버리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예상과 1000% 맞아 떨어지더군요. 주니어보드를 하고 이보다 더 광고를 좋아할 수 있을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상반기는 이 모든 걸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하기 바빴습니다. 여전히 두렵지만.. 이 두려움을 물리칠 힘과 사람들도 얻은 것 같아 기쁩니다.

지원 CW

광고와의 짜릿한 밀당을 시작한 나날들! 배울 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 광고와 가깝고 멀어지기를 반복한 것 같다. 그런데 돌아보니 처음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했을 거리까지 와 있는 느낌! 멘토님들의 수업과 친구들과 과제를 하다보니 어느덧 광고에 감겨버렸다. 주니어보드 36기와 함께한 시간도 정말 소중한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불태울 수 있길 항상 응원해♡

혜리 AD

광고의 광자도 모르던 저를 "광고하고 싶어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 주니어보드. 인복이 넘치던 상반기였습니다. 티키타카의 신 세진 멘토님을 포함해 저희를 위해 정성을 쏟아주시는 모든 멘토님, 술 없이도 함께 깔깔 웃으며 밤새 떠들 수 있는 주니어보드 동기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꾸준히 지원해 주시는 피플팀까지. 마치 복권에 당첨된 듯 좋은 인연을 한 번에 만난 것 같아요. 주니어보드 하길 참 잘했다!!



대망의
멘토멘티
결정날!!!



주보
대표멘티들의 만남.
귀하다...

멘티들의 소감

승리 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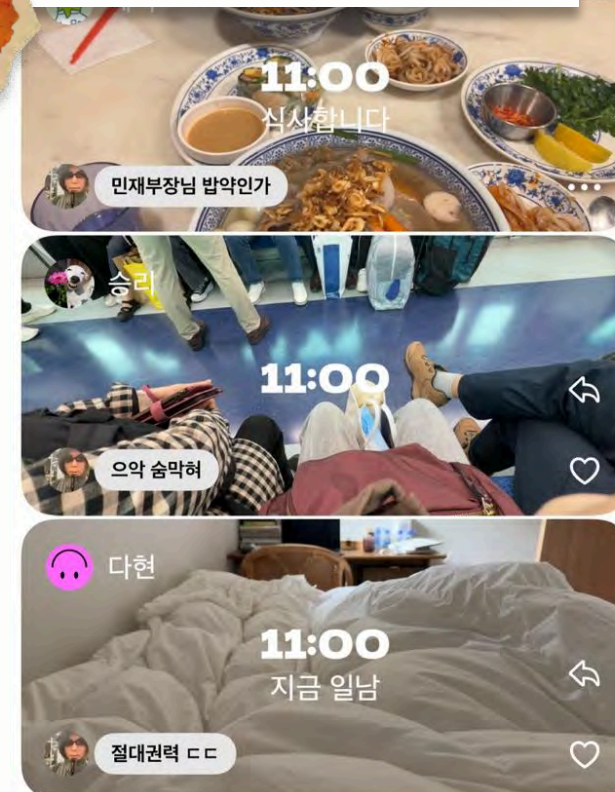
몇 달 동안 광고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광고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지니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셀프디깅을 통해 작업물보다 나라는 사람이 지닌 가치관을 먼저 들여다보게 되었고, 광고에 대한 생각도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 광고인이 되기 위해 겪는 수많은 고민에 대해 멘토님들과 거리낌 없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남았다.

다현 AD

눈 떠 보니 어느덧 3개월이 훌쩍 지나 상반기가 끝났네요. 주보 친구들과 세진 차장님을 처음 만났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보는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고,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었어요. 또 친구들의 이야기와 취향, 경험을 들을 때마다 서로 다른 세계를 여행하는 기분이라 정말 즐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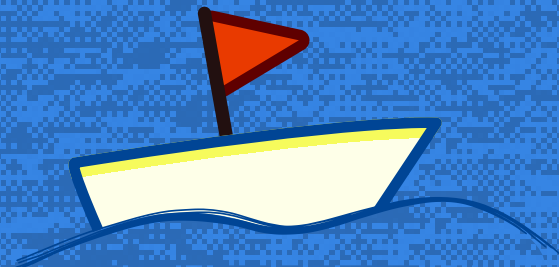
정환 AD

2026년 상반기는 주니어보드로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광고 공부를 시작한 이후 항상 제 목표였던 TBWA에서 광고와 사람에 대해 더욱 깊이 배울 수 있었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니어보드 친구들과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쌓았습니다. 주니어보드는 '이정환'이라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남은 기간도 후회 없이 보내고자 합니다.



대글달기
전문가세요?

다음 목적지로 떠나는 15인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To be continued...